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2021. 11. 1.(월) 11:0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송용자	1. 제102회 전국체전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관심도 적었고 불만 속에서 치러졌다. 만족할 수 없었던 전국체전, 시장께서 결산을 해 본다면?	시 장 (문화체육관광국장)	P.1
	2. 코로나 속에서 치러진 전국체전이지만 거리에 조형물, 홍보, 심지어 서포터즈들의 티셔츠와 체육복까지 불만의 상징이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	〃	P.4
	3. 이번 체전에 구미시 비용도 약 764억이 소요되었지만 모든 것은 경상북도 위주로 진행되어 ‘구미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 이것은 대회 진행과정 및 의전상 공무원들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	P.8
	4. 전임시장이 남겨 놓은 큰 숙제였던 새마을 테마파크를 비롯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완공 되었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시 장 (행정안전국장)	P.10
	5. 전임시장의 계획했던 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시민들에게 말씀해 달라.	시 장 (기획예산담당관)	P.13

질문

1. 제102회 전국체전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관심도 적었고 불만 속에서 치러졌다. 만족할 수 없었던 전국체전, 시장께서 결산을 해 본다면?

-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용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대회 3주전까지도 대회가 개최될 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대회 개최에 대한 시민 여론 역시 나뉘어, 대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악조건이었음에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대회를 마쳤습니다.

-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구미에서 성대하게 이뤄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대회 1년 연기도 모자라
 반쪽짜리 대회로 개최되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 전국체전은 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국내 최대 규모 축제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미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지난 2년 간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가
 대회 개최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준비해온 것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 전국체전이 축소, 무관중 개최로 결정되면서
 참가 인원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많은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
 전국체전을 통해 기대한
 대외홍보효과와 지역경제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양대 체전 통틀어 6천명의 선수, 임원이 구미를 방문하였음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큰 사건·사고 없이 대회를 마무리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통해 구미에서도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할 소년체전이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3천명 이상의 선수, 임원, 학부모가 구미를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시 소상공인과 숙박업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 그리고, 내년 5월에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2023년 4월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부디 앞으로 열릴 대회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모든 국민과 시민이 축제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구미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코로나 속에서 치러진 전국체전이지만 거리에 조형물, 홍보, 심지어 서포터즈들의 티셔츠와 체육복까지 불만의 상징이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

- 체전을 잘 치르고자 준비한
각종 체전 사업의 결과물이 당초 기대에 못미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먼저, 전국체전 꽃 조형물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21년 7월 280백만원의 예산으로
조달청에 용역 카탈로그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총 4개 업체에서 제안하였으나,
141백만원의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당초 제시한 꽃 조형물 설치 계획과 달리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선정된 업체의 사업추진 중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달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비록 업체측의
꽃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의 미흡함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전국체전 기간동안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지 못함에 대하여
저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앞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회 3주 전까지 전국체전이 개최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도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고,
게다가 무관중 개최로 결정이 되다 보니,
선수, 임원을 제외하고는 경기 관람이 불가하게 되어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택시 광고, 언론 광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롤링보드 광고 위주로
홍보를 진행함에 따라
시민들이 홍보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9월 17일 전국체전이 고등부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관내에 가로등 배너와 현수막,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지만, 환영 현수막을 제외한 홍보 시설물 대부분을 도에서 우선 추진하고, 시에서는 빠진 곳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여, 구미시는 없고 경상북도만 있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종사자 근무복 품질 문제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 근무복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도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입찰하였고,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계약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먼저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제작을 지시하였으나,
실제 납품된 근무복은 사이즈와 품질 면에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 수년간 옷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그런 식으로 제작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 시에서는 업체에 시정 및 재납품을 요구하고,
일부 물량만 근무자에게 우선 배부하였으며,
대회 기간은 지났지만
불량 건에 대해 교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체전을 위해 준비한 각종 사업이
시민분들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질문	3. 이번 체전에 구미시 비용도 약 764억이 소요되었지만 모든 것은 경상북도 위주로 진행되어 ‘구미시장이 보이지 않는다’ 는 말이 많은데 이것은 대회 진행과정 및 의전상 공무원들의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	---

○ 많은 분들로부터

전국체전 개폐회식에 ‘경상북도만 있고, 구미시는 없느냐’
‘구미시장은 얼굴 한 번 못 비추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답변에 앞서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 경상북도 주관으로
도민체전과 달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대회를 운영한다는 점을
먼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은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에 따라
식순과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전 대회에서도

개폐회식에 주개최지 시장의 역할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 주개최지에서 시장의 역할을 순서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매년 반복되고, 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한체육회에서는 규정 준수와 선례가 없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구미시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대한체육회와 경상북도에 시장의 역할을 요구를 하였으나, 역시 대한체육회에서 선례가 없다며 거부하여, 차선택으로 개폐회식 시나리오에 구미 언급을 자주 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 전국체전 유치는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뤄지고, 주개최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체전을 준비하는데 반해 대한체육회에서 주개최지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점은 저 역시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앞으로 민선자치시대에 맞도록 개폐회식 시나리오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전임시장이 남겨 놓은 큰 숙제였던
새마을테마파크를 비롯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완공 되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총 9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8월 준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자산인 새마을운동의 보전·발전과
새마을중주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현재 새마을테마공원은 올해 5월 재개관하여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금은 부득이 구미시의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올해 4월부터 경상북도에서 관리·운영 중이며,

경북도와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새마을관련 중앙 교육, 전국단위 행사 유치와
조각공원 등 야외 볼거리 조성 등으로
새마을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구미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마을테마공원을 직접 운영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여러 논란 끝에 2021년 6월 30일 개관을 하고
9월 28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박정희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선구자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를 쌓았고
경제발전을 이루게 한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구미 공단을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과
근대화 모습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9월 17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역사자료관은 젊은 세대가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역사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는
구미 근현대 역사박물관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박물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상모동 일대는 역사자료관을 비롯하여
박정희대통령 생가와 민족중흥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자료관 뒤쪽 유희부지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이곳 일대는 역사와 문화, 힐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질문

5. 전임시장의 계획했던 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시민들에게 말씀해 달라.

- 민선 7기를 시작할 때

1,900억 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지방채무 잔액 : '18. 6월말 기준 1,877억원 / '20. 12월말 기준 2,098억원

-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02회 전국체전, 새마을테마파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등

전임시장님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 정치와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X구미역 정차 등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민선7기 공약 이행과
지방채 잔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채무관리,
10년 이후 우리 후세들의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